

## 색채 인지와 언어 표현의 상관성(2)\*

-국가 표준색이름 'KS A 0011'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희\*\* · 신호철\*\*\*

(고려대 · 경기대)

### Abstract

**Lee, Hyun-hee · Shin, Ho-cheol. 2012.** The Color Recognition and Color Expression of Co-relationship (2): A Critical Viewpoint of the National Standard Color Name 'KS A 0011'.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235-265. This paper constitutes a second report regarding an experimen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as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s protocol required three steps: first, sixty subjects viewed 308 color chips; next, they recorded by themselves the proper color terms for those color chips; last, they selected the proper color terms matching both color chips and color terms. This experiment yielded several notable discoveries related to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First, in the task examining systemic color terms, only 22.72% answers corresponded with the systemic color terms of KS A 0011. Especially notable was that the 'Yellow' color terms (31.35%) were at the top of the correspondence degree and the 'Red' color terms (16.58%) were at the bottom degree. Second, the task relating to idiomatic color terms revealed that 'Namsack (dark blue), Bora (deep purple), Jaju (deep purplish red)' color terms (23.33%) were at the top level and 'Red' color terms were at the bottom. Next, we elucidated three controversial points regarding KS A 0011: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1-KRF 327-2011-1-A00366). 논문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린다. 심사를 통해 기술상의 문제점이나 논리적 오류를 상당 부분 수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문제들은 추후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 주저자

\*\*\* 교신저자

modifying adjectives, division of complex colors and combination of systemic color terms.

**Keyword:** KS A 0011, systematic color term, idiomatic color term, focal color, basic color term

## I. 서론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공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쉽게 ‘하늘’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그 답은 다를 것이다. 보통은 ‘하늘색’이나 ‘파란색’이라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 ‘열은 파란색’, ‘회색이 섞인 하늘색’ 등 다양하게 응답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만일 동일한 대상의 색채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양상 또한 다양하다면 얼마나 어떻게 복잡한지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색채 인지와 언어 표현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논문은 그 두 번째 결과물이다.

색에 대한 인지나 색채어 등에 대해서는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색채학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국어학에서도 역시 색의 언어적 표현을 대상으로 통시적, 공시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L\*a\*b\*, sRGB, CMYK, H V/C 등 스펙트럼 선상에 있는 색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표준색과 표준색이름인 ‘물체색의 색이름’(KS A 0011:2010)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sup> 이는 동일한 색에 대해서도 사용자마다 혹은 산업의 영역마다 고유의 색이름 체계가 있어 이를 통일하기 위한 국가 표준안의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색과 그 색에 대한 언어 표현은 형식이 매우 불규칙하다. 언어학자들에게는 ‘거무스레하다’와 ‘거무튀튀하다’, ‘거무죽죽하다’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 색이지만 일반 언증들에게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하여 이번 연구는 색채 인지와 색채의 언어 표현, 두 가지를 함께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실험

1) ‘물체색의 색이름(KS A 0011:2010)’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1964년 11월 30일에 제정하고 2010년 12월 14일에 개정하여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585호로 발표한 것이다.

연구로 진행되었다. 실험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색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KS A 0011에 제시된 색이름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언중들이 동일한 색편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응답을 보이는지, 또 기준으로 정해진 KS A 0011의 색이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치율이 높은 색채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의 분석을 토대로 KS A 0011 고시의 색이름이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과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등을 정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연구는 이현희·신호철(2012)와 같은 실험의 결과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이현희·신호철(2012)이 연구의 방법론과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방식을 소개하는 논문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연구는 피험자 집단을 고등학생까지 확장하고, 또한 연구의 결과를 KS A 0011의 색이름과 비교해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물론 동일한 실험의 결과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므로 기본적인 실험 방법과 진행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제Ⅱ장의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은 이현희·신호철(2012)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같음한다.

## Ⅱ. 연구 방법

### 1. 실험 개요

이번 실험은 색채를 인지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나타난 언어 현상을 살피기 위해 진행되었다.<sup>2)</sup> 이를 위해 기준이 되는 색편으로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의 색편(色片, color chip)을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한 설문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대상은 중고등학생 총 60명이다. 실험에서는 ‘표준색이름편’만을 한정하여 사용하였는데, ‘표준색’의 경우 기본색 15계열의 색을 기본으로 하여 색상, 명도, 채도에 차이를 보이는 346개 색편(기본색 15색채, 계통색 203색채, 관용색 128색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이 중 재현성이 없거나 무채색 계

2) 자세한 실험의 방법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현희·신호철(2012) 참조.

3)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는 크게 ‘표준색이름편’과 ‘디자인활용편’으로 나누어지고, ‘표준색이름편’은 다시 ‘계통색이름’과 ‘관용색이름’으로 나누어진다. ‘계통색이름’은 ‘빨

열 등은 제외하고 308개의 색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편의를 위해 308색의 색편을 12개의 묶음으로 분류하였다.<sup>4)</sup> 이때 분류의 순서는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의 배열 순서에 따랐고 각 묶음들의 색편수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이 12개 묶음을 정리하면 아래 (1)과 같다.

(1) 대상 색편의 분류표

번호	색이름 계열	Hue 계열(색상)	색편의 수
1	계통색이름	R(빨강)	28
2		YR(주황)	30
3		Y(노랑)	21
4		GY(연두), G(초록)	30(16+14)
5		BG(청록), 2.5PB(파랑)	29(11+18)
6		B(남색), 7.5B(남색), 5P(보라)	24(6+18)
7		5RP(분홍), 7.5RP(분홍), 10RP(자주)	30(14+16)
8	관용색이름	R(빨강)	25
9		YR(주황)	25
10		Y(노랑)	20
11		GY(연두), G(초록), BG(청록), B(파랑)	22
12		PB(남색), P(보라), PR(자주)	24
합계			308

308개 색체에 해당하는 색편을 제작하고, 이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도 기본색 계열에 따라 12개 묶음으로 각각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선택형 문항과 기술형 문항의 두 가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강, 선명한 빨강, 밝은 빨강’ 등의 형식인데, ‘수식형용사+색이름’의 구성이다. 이에 비해 ‘관용색이름’은 색에 대해 한국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사물의 이름을 들어놓았는데, ‘딸기색, 호박색, 바다색’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표준색이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4) 308개의 색편을 한 묶음으로 제시할 경우 피험자의 응답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한 묶음, 보통 30개 내외의 색편의 색이름을 쓰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였다. 특히 색편들 간에 색상이나 명도, 채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색편들 간의 차이가 불분명할 경우 특히 어려워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2)와 같다. 피실험자의 인원은 학년별로 10명 정도로 제한하였다.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좀더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실험의 부담량이 매우 과중하므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대신 여러 번의 파일럿 스터디를 거쳐 실험 과정을 최대한 정교하게 설계하였고, 또 조사자인 교사와 피험자인 학생들에게 실험의 목적, 방향,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여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2) 실험 방법 개요

실험 대상	수도권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실험 집단	중·고등학생 1, 2, 3학년 각 10명씩, 총 60명
실험 방법	일대일 직접 조사법
실험 시기	2011년 9월 20일 ~ 11월 20일
실험 시간	제한 없음

피험자들은 조사자와 일대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12개의 색편 묶음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즉각적으로 12개의 응답지에 색채 표현을 쓰도록 하였다. 응답 유형은 일종의 주관식 문항인 기술형과 객관식 문항인 선택형, 두 가지가 있는데, 실험에서는 선택형 응답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기술형 응답부터 작성하도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실험 종료 후 응답지를 수집하고 선별 작업을 마친 후 응답이 부실한 경우가 있어 일부 학년에서는 추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응답 결과를 Excel 프로그램에 모두 입력하였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실험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는 계통색과 관용색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1. 계통색

계통색은 총 192개의 색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색상(Hue) 계열에 따라 7개로 분류한 그룹의 평균 일치율을 높은 순위부터 보이면 (3)과 같다.

(3) 계통색의 Hue 계열별 일치율 순위

일치율 순위	색상 계열		색편수	전체 응답수	일치 응답수	평균 일치율 <sup>5)</sup> (%)
	Hue 계열	대표적 색이름				
1	Y	노랑	21	2,520	790	31.35
2	B, 7.5B, 5P	남색, 보라	24	2,880	889	29.68
3	BG, 2.5PB	청록, 파랑	29	3,480	876	25.42
4	YR	주황, 갈색	30	3,600	792	22.00
5	GY, G	연두, 초록	30	3,600	644	17.89
6	R	빨강	28	3,360	557	16.58
7	5RP, 7.5RP, 10RP	분홍, 자주	30	3,600	580	16.11
색편의 수 합계/평균(%)			192	23,040	5,128	22.72

\* 전체응답수: 각 Hue 계열별 색편수의 총수 × 학생수 (중고등 60명) × 응답유형2(선택형, 기술형)  
 \* 일치응답수: 색편에 대한 응답이 KS A 0011과 일치하는 경우  
 \* 평균일치율: 전체 응답 중 일치 응답수의 비율(백분율)

7개 계열별 색채 중에서 일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랑’ 계열의 색채로 평균 일치율은 31.35%이고, 가장 일치율이 낮은 것은 ‘분홍, 자주’ 계열의 색으로 16.11%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KS A 0011의 계통색이름과 22.72% 정도의 응답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남색, 보라’ 계열의 일치율이다.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 ‘노랑’과 비교해도 1.67%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빨강이나 초록 등의 일치율에 비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치율의 차이는 KS A 0011의 정연하고 규칙적인 색이름 체계와 언중들의 실제 사용 양상이 색채의 계열에 따라 일치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색을 보고 차이를 느끼는 색에 대한 인지력이 ‘노랑’

5) 심사 의견 중 KS A 0011의 색이름을 일반인이 모두 다 알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다.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초고에서는 정답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일치율’로 용어를 정정하였다. 즉 KS A 0011의 색이름과 피실험자들이 응답한 색이름이 동일할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백분율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나 ‘남색, 보라’ 계열에서는 비교적 높지만, ‘빨강’이나 ‘분홍, 자주’ 계열에서는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sup>6)</sup>

이제 계통색 색편에 대해 문항의 유형별(선택형, 기술형) 응답의 일치율을 상하위 각 10개의 색 이름을 제시해 보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계통색에 대한 선택형 문항의 일치율 순위부터 살펴보자.

(4) 계통색 일치율 순위 - 선택형 문항 (상위 10개)

색채명	중학교			고등학교			일치 응답수	일치율(%) (일치응답수/60)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진한 노랑 (진노랑)	8	10	10	9	8	10	55	91.66
노랑	9	10	8	8	8	8	51	85
연한 노랑 (연노랑)	7	8	5	7	6	9	42	70
진한 주황 (진주황)	7	6	8	7	6	3	37	61.66
연한 보라 (연보라)	7	7	3	5	3	6	31	51.66
주황	5	4	2	9	5	5	30	50
진한 보라 (진보라)	5	7	1	5	5	6	29	48.33
남색	6	6	5	5	2	5	29	48.33
보라	6	6	3	6	2	5	28	46.66
빨강	6	4	3	3	4	6	26	43.33

(4)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은 ‘진노랑, 노랑, 연노랑’ 등 ‘노랑’ 계열의 색이

6) 물론 표준색의 선정에서 ‘노랑’이나 ‘남색, 보라’ 계열은 색채의 스펙트럼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색들로 표준색이 선정된 반면, ‘빨강’이나 ‘분홍, 자주’ 계열의 색은 좀더 인접해 있는 색들이 표준색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언중들의 색채 인지가 색상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색채 스펙트럼에서의 멀고 가까운 거리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탁한 연두(7.5GY 6/6)’와 ‘흐린 연두(7.5GY 7/6)’의 차이는 명도 0, 채도 1 만큼의 차이인데 비해, ‘탁한 주황(2.5YR 6/6)’과 ‘흐린 주황(2.5YR 6/10)’의 차이는 명도 0, 채도 4 만큼의 차이이다. 후자의 색들이 전자의 색들에 비해 명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어학의 연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인지심리학이나 색채학 등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에서 논의를 멈춘다.

름이 KS A 0011의 색이름과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랑’ 계열은 계통색의 기술형 응답에서나 관용색 응답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선택형 응답에서 일치율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유사한 일련의 색들을 구분해내는 색의 인지나 그것을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색의 계열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계열의 색에 비해 ‘노랑’ 계열의 색들은 색을 구분하여 인지하고 그것을 표준적 색이름으로 표현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고 하겠다. 물론 색편의 수가 다른 ‘색 계열’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이 높은 일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기술형 응답이나 관용색이름 등에서 고르게 ‘노랑’ 계열의 색들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랑’ 계열의 색인지가 다른 계열의 색에 비해 매우 잘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색이름의 형식과 관련하여 ‘진한(진-)’이나 ‘연한(연-)’의 수식형용사가 붙은 색이름이 10위 안에 5개가 포함되어 있다. 계통색이름이 아닌 조합색이름이 10위권 안에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언중들의 색채 표현에서 ‘진한, 연한’의 선택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색이름의 형식과 관련한 다양한 수식형용사나 접두사, 접미사 중에 특히 ‘진한’과 ‘연한’이 선택된 것은 색의 인지 과정에서 채도와 관련한 표현인 ‘진한, 연한’이 우선적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접두사로 가장 전형적인 ‘새/셋/시/잇-’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물론이고 접미사로 볼 수 있는 ‘-스름하다, -스레하다, -죽죽하다, -튀튀하다’ 등에 비해서도 선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계통색에 대한 기술형 문항의 응답 중 상위 10개 색이름을 살펴보자.

(5) 계통색 일치율 순위 - 기술형 문항 (상위 10개)

색채명	중학교			고등학교			일치 응답수	일치율(%) (일치응답수/60)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노랑	8	9	7	10	6	8	48	80
진한 노랑 (진노랑)	6	3	6	5	4	5	29	48.33
주황	3	3	3	7	5	7	28	46.33
연한 보라 (연보라)	7	5	6	2	0	4	24	40
보라	8	1	5	1	4	5	24	40
진한 주황 (진주황)	5	3	2	6	3	4	23	38.33
진한 보라 (진보라)	4	2	5	4	3	5	23	38.33
빨강	4	4	3	6	1	4	22	36.66
남색	8	1	4	5	1	2	21	35
연한 노랑 (연노랑)	3	1	4	5	1	2	16	26.66



(5)에 보이는 것처럼 기술형 응답의 경우 (4)의 선택형 응답과 일부 순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노랑’ 계열의 색편이 일치율이 높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노랑’의 일치율이 80%로 선택형 응답의 일치율과 유사할 뿐 그 외 ‘진한 노랑’부터는 5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0위인 ‘연한 노랑’은 일부 학년에서만 일치율이 높았을 뿐 고르게 낮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즉 색채를 인지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표현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일례로 ‘빨강(8위), 남색(9위), 연한 노랑(10위)’의 실제 응답을 몇 가지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6) ‘빨강, 남색, 연한 노랑’의 실제 응답의 예 (학년 통합)

- 가. 빨강: 어두운 빨강, 밝은 빨강, 벽돌색, 딸기색, 선명한 빨강, 꽤 빨강, 자두, 진빨강, 완전 빨강, 짙은 빨강 ...
- 나. 남색: 파란색, 밝은 군청색, 옅은 군청색, 청남색, 짙은 파랑색, 남색, 남보라색, 진 파랑, 청남색, 코발트색, 코발트블루, 밤하늘색, 질바랑, 파란 보라색, 연한 보라색, 진한 파랑색, 밝은 남색, 밝은 보라색, 연한 남색 ...
- 다. 연한 노랑: 연한 노랑, 진한 노랑색, 흐린 노랑, 탁한 아이보리, 아이보리, 탁한 노란색, 흐린 노란색, 상아색, 연주황, 베이지, 밝은 노랑, 살구색, 진한 살구색, 망고색, 연노란색, 노란색, 살색, 옅고 탁한 살색, 백도색(복숭아), 사우전 아이랜드 셸러드 드레싱 ...

한 색편에 대해 60개의 응답 유형이 가능한데, 기술형 응답의 경우 기본색을 기준으로 명도와 채도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응답이 출현한다. (6)의 경우 응답의 일치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색편이기는 하나 실제 응답을 보면 역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벽돌, 딸기, 자두, 백도, 밤하늘’ 등 사물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거나 ‘어두운, 밝은, 흐린, 탁한’ 등 색의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실험 진행에 따라 바로 직전에 본 색편인 ‘선명한 빨강, 밝은 남색, 흐린 황갈색’ 등과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것을 언어로 기술해야 하는 것은 피험자 개개인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빨강’이나 ‘남색’은 기본색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빨강’이나 ‘남색’과 같은 계열색이름이 아닌 조합색이름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기본색으로 설정된 색채들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즉 기본색의 ‘빨강’을 보고 피험자들이 ‘빨강’이라고 쉽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색채 인지에서 ‘빨강’이 다른 H

V/C 값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아래 (7)과 같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랑’ 계열 색편의 일치율이 인지나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노랑’ 계열의 일치율이 70, 80%가 넘는 것에 비해 ‘주황’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빨강’은 40% 정도의 일치율을 보인다. 즉 상위 10개 색편의 일치율들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으나 하위 10개의 색편들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인 것을 볼 수 있다.

(7) 계통색의 일치율 순위 - 질문지 유형, 학년 통합 (상위 10개)

순위	계통색이름	H	V/C	일치 응답수			일치율 (%)		
				선택형	기술형	합	선택형	기술형	평균
1	노랑	5Y	8.5/14	51	48	99	85.00	80.00	82.50
2	진한 노랑 (진노랑)	2.5YR	8/14	55	29	84	91.67	48.33	70.00
3	진한 주황 (진주황)	2.5YR	5/14	37	23	60	61.67	38.33	50.00
4	주황	2.5YR	6/14	30	28	58	50.00	46.67	48.33
5	연한 노랑 (연노랑)	5Y	9/6	42	16	58	70.00	26.67	48.33
6	연한 보라 (연보라)	5P	7/8	31	24	55	51.67	40.00	45.83
7	보라	5P	3/10	28	24	52	46.67	40.00	43.33
8	진한 보라 (진보라)	5P	2/8	29	23	52	48.33	38.33	43.33
9	남색	7.5PB	2/6	29	21	50	48.33	35.00	41.67
10	빨강	7.5R	4/14	26	22	48	43.33	36.67	40.00

다음으로 계통색이름의 응답 중 일치율 순위 하위 10개 색편의 목록을 보이면 (8)과 같다. 일치응답수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기술형 응답의 경우는 순위로는 3개 순위이나 색편의 수를 10개로 맞추기 위해 일치 응답수 하위 10개 목록을 선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8)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위권의 색이 주로 ‘빨강’ 계열의 색으로 모두 수식형용사를 포함하면서 ‘검정’, ‘자주’, ‘회색’ 등과 복합 색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수식형용사 역시 상위권의 색이름들이 ‘진한, 연한’이었던 것에 비해 ‘탁한, 흐린, 어두운’ 등이어서 색의 명도나 채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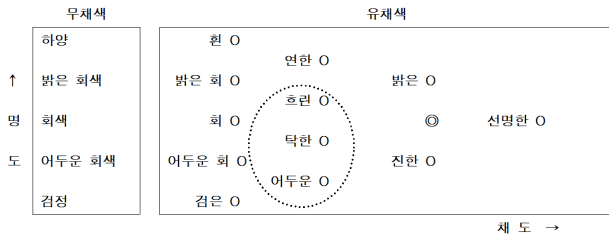
(8) 계통색 일치율 순위 - 선택형 문항 (하위 10개)

순위	계통색이름	H V/C	중학교			고등학교			일치 응답 수	일치율 (%)
			1학 년	2학 년	3학 년	1학 년	2학 년	3학 년		
183	탁한 빨간 주황	10R 5/6	2	3	3	0	1	1	10	16.66
184	어두운 빨강	5R 2/6	2	3	2	1	0	1	9	15
	빨간 회색(적회색)	5R 5/1	3	3	2	0	0	1	9	
186	빨간 검정	5R 2/1	3	2	2	0	0	1	8	13.33
187	선명한 빨강	7.5R 4/16	3	0	2	0	0	2	7	11.66
	검은 빨강	7.5R 2/2	2	2	2	0	0	1	7	
	탁한 자줏빛 분홍	<b>5RP 7/6</b>	5	0	0	0	0	2	7	
190	흐린 빨강	7.5R 5/6	0	2	3	0	0	1	6	10
191	탁한 자줏빛 분홍	<b>5RP 6/6</b>	0	2	0	2	0	1	5	8.33
192	탁한 빨강	7.5R 4/6	0	1	2	0	0	1	4	6.66

계통색이름에 대한 선택형 응답의 경우 하위 순위의 색편들도 10%대에서 일치율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술형 응답의 경우는 (9)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60명의 피험자 중 일치응답수가 0인 색편의 수가 30개, 1인 색편의 수가 32개, 2인 색편의 수가 34개여서 일치응답수가 5회 이하인 색편의 수가 151개로 약 3/4에 해당한다.

(9) 계통색이름의 일치응답수 - 기술형 문항 (하위 순위)

7) 아래는 무채색의 명도, 유채색의 명도와 채도의 상호 관계를 수식형용사를 중심으로 보인 것이다. 이는 KS A 0011의 수식형용사 체계이기도 한데, 하나의 수식형용사는 채도와 명도를 동시에 표시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계열색 위치인 ‘◎’를 중심으로 채도가 높은 ‘진한’, 명도가 높은 ‘열은’에 비해 점선에 포함된 것처럼 ‘흐린, 어두운, 탁한’은 명도와 채도가 높지 않다.



- 가. 0회: 어두운 녹갈색, 노란 회색(황회색), 탁한 노란 연두, 어두운 적갈색, 밝은 노란 연두, 선명한 노란 연두, 밝은 회황색, 회황색, 흐린 노란 연두, 흐린 갈색, 흐린 황갈색, 연한 노란 주황, 노란 주황, 녹갈색, 갈회색, 흐린 노란 주황, 연한 황갈색, 밝은 녹갈색, 어두운 갈회색, 연한 녹연두, 어두운 회갈색, 갈흑색, 밝은 황갈색, 밝은 녹회색, 어두운 회녹색, 선명한 녹연두, 녹연두, 흐린 초록, 탁한 녹연두, 탁한 자줏빛 분홍(5RP 6/6)
- 나. 1회: 초록빛 하양, 탁한 황갈색, 진한 노란 연두, 어두운 회청록, 연한 노란 연두, 어두운 회청색, 진한 적갈색, 초록빛 회색(녹회색), 밝은 빨간 주황, 회청색, 진한 노란 분홍, 밝은 회연두, 밝은 회청색, 탁한 노란 분홍, 흐린 노란 분홍, 선명한 빨간 주황, 진한 노란 주황, 흐린 연두, 밝은 적갈색, 회연두, 노란 갈색(황갈색), 탁한 적갈색, 밝은 회녹색, 흐린 녹연두, 자줏빛 분홍, 밝은 녹연두, 연한 자줏빛 분홍, 탁한 빨간 주황, 검은 빨강, 탁한 자줏빛 분홍(5RP 7/6), 흐린 빨강, 탁한 빨강

(9)를 보면 대부분 수식형용사를 포함하는 색이름과 ‘녹갈색, 적갈색, 갈회색’ 등 한자어를 이용한 복합 색이름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초점색 혹은 기본색이 아닌 복합 색체들의 경우, 색체의 인지나 언어 표현에 있어 피험자들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동일한 색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인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색편들의 배열은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색편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색으로 인지하거나 혹은 다른 색으로 인지하더라도 유사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10)은 실제 응답을 보인 것으로, 계통색이름은 다르지만 피험자들은 색을 구분하여 인지하거나 언어로 표현할 때 거의 유사한 응답을 한 예이다.

(10) 계통색이름 중 기술형 응답의 실제

- 가. 밝은 녹회색: 하얀 민트, 연한 연두, 탁한 녹연두, 흰초록, 허연색, 하얀 연두, 흰색, 회색, 초록하양, 환한 아이보리, 아이보리, 탁한 연연두색, 야광색, 옥색, 베이지 약한 연두, 너무 연한 연두, 밝은 흰개색, 살짝 탁한 밝은 연초록색, 하늘 연노랑색, 레몬 흰색, 노란 흰색, 희미한 노란색, 환한 베이지, 하얀 초록색, 흰회연두색 ...
- 나. 초록빛 하양: 하얀 초록, 흰초록, 하얀색, 회연두, 하얀 민트, 돌색 빛갈 물색, 흰색, 연한 베이지 하얀색, 연한 연두, 하얀 초록색, 탁한 회연두색, 연두빛 야광색, 흰연두, 밝은 연초록색, 흰 연두색, 베이지 푸른 연두, 밝은 연녹색, 밝은 회회

색, 밝은 민트, 더 밝은 연두색 ...

다. 어두운 회녹색: 어두운 미역색, 미역색, 다시마색, 검정 초록색, 어두운 초록색, 진 녹색, 탁한 녹색, 짙은 녹색, 구렁덩이색, 매우 탁한 초록, 흙녹색, 짙은 검 초록색, 군복색, 진한 녹색, 검초록, 진한 초록색, 검은 초록색, 탁하고 진한 녹색 ...

라. 검은 초록: 진한 녹색, 녹회색, 탁한 초록, 탁한 녹연두, 진하고 어두운 녹색, 진한 썩색, 검초록색, 시커먼 초록, 진한 썩떡색, 검은색, 어두운 초록색, 암흑색, 진한 카키, 검은 미역색, 검은빛 녹색, 검은 녹색, 짙은 이끼색, 검정스러운 녹색, 진초록색, 썩색, 다시마색, 흑녹색, 해조류색, 마른미역색, 검녹색, 어두운 진녹색 ...

(10)에서 '밝은 녹회색(5G 8/1)'과 '어두운 회녹색(2.5G 3/2)'의 경우 초점색을 '회색'으로 볼 것인지 '녹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녹회색'과 '회녹색'으로 표현이 달라진다. 또 인접색인 '초록빛 하양(5G 9/1)'과 '검은 초록(2.5G 2/2)'과의 색의 구분 역시 간단하지 않다. 결국 (10가)와 (10나)는 거의 같은 색으로 인식하고 실제 색채의 언어 표현도 거의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10다)와 (10라)도 '미역색'과 같이 동일한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 명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동일한 색상과 채도를 가지는 색편들에 대해 피실험자들은 같은 색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도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제 계통색이름의 응답에 대해 질문지 유형과 학년을 통합하여 전체 일치율을 내고 이 중 하위 10개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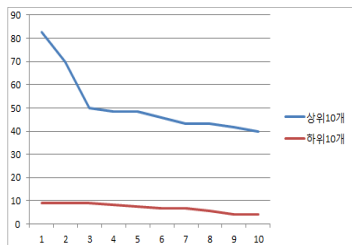
(11) 계통색의 일치율 순위 - 질문지 유형, 학년 통합 (하위 10개)

순위	색채명	H V/C	일치 응답수			일치율 (%)		
			선택형	기술형	합	선택형	기술형	평균
183	어두운 빨강	5R 2/6	9	2	11	15.00	3.33	9.17
184	빨간 회색(적회색)	5R 5/1	9	2	11	15.00	3.33	9.17
185	탁한 빨간 주황	10R 5/6	10	1	11	16.67	1.67	9.17
186	빨간 검정	5R 2/1	8	2	10	13.33	3.33	8.33
187	선명한 빨강	7.5R 4/16	7	2	9	11.67	3.33	7.50
188	검은 빨강	7.5R 2/2	7	1	8	11.67	1.67	6.67
189	탁한 자줏빛 분홍	5RP 7/6	7	1	8	11.67	1.67	6.67
190	흐린 빨강	7.5R 5/6	6	1	7	10.00	1.67	5.83
191	탁한 빨강	7.5R 4/6	4	1	5	6.67	1.67	4.17
192	탁한 자줏빛 분홍	5RP 6/6	5	0	5	8.33	0.00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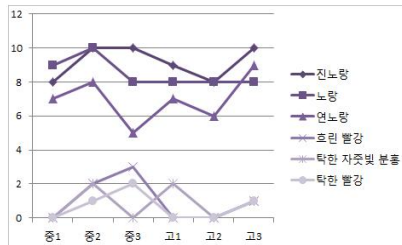
(11)에 보이는 것처럼 통합 순위에서는 압도적으로 ‘빨강’ 계열의 색들이 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황’이나 ‘분홍’처럼 ‘빨강’의 색상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또한 색이름이 수식형용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탁한’이나 ‘어두운’과 같이 색의 명도나 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색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색의 인지에 있어 명도나 채도가 높은 것이 좀더 잘 인지되고 또 언어적 표현에서도 비교적 규범적인 형태와 일치하는 반면 명도나 채도가 낮은 경우 색을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응답률의 상하위 목록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보이면 아래 (12)와 같다. (12가)는 앞서 (7)과 (11)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상위 10개의 일치율과 하위 10개의 일치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어 (12나)는 선택형 응답의 상하위 색편 중 각 3개를 선정하여 그래프로 보인 것인데, (4)와 (8)을 비교한 것이다.

(12) 가. 상하위 응답별 일치율 추이



나. 상하위 3개 색편의 학년별 일치응답수



(12가)에서 상위 10개 색편의 일치율(백분율)은 ‘노랑’의 80%에서 시작하여 ‘진한 노랑’, ‘진한 주황’을 거쳐 ‘주황’부터는 40%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하위 10개 색편의 일치율은 10% 밑에서 서서히 감소한다. 즉 하위 응답의 경우 일치응답수가 고르게 낮게 나타나는데 비해 상위 응답의 경우는 일치응답수의 편차가 색상과 명도에 따라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2나)는 상하위 각 3개의 색편의 학년별 일치율 변동을 보인 것이다. ‘연노랑’을 제외하고 상위권의 색편들은 학년별 편차가 비교적 적은 반면 하위권의 색편들은 이보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권의 색편들은 색을 인지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일정하지 않고 그것이 다양한 응답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2. 관용색

관용색은 총 116개의 색편을 5 묶음으로 분류하였다. 각 묶음별로 피험자의 응답과 KS A 0011의 색이름이 일치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부터 보이면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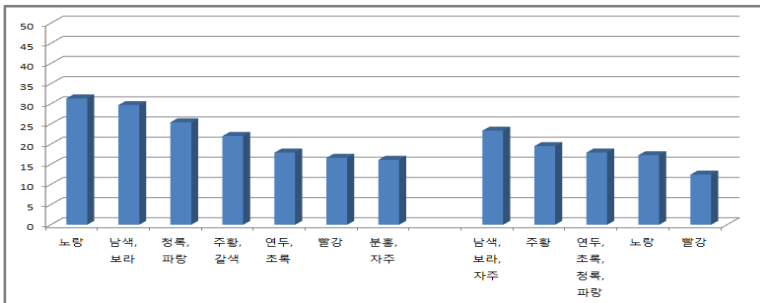
(13) 관용색의 Hue 계열별 일치율 순위

일치율 순위	색상 계열		색편수	전체 응답수	일치 응답수	평균 일치율(%)
	Hue 계열	대표적 색이름				
1	PB, P, PR	남색, 보라, 자주	24	2,880	672	23.33
2	YR	주황	25	3,000	585	19.50
3	GY, G, BG, B	연두, 초록, 청록, 파랑	22	2,640	473	17.91
4	Y	노랑	20	2,400	414	17.25
5	R	빨강	25	3,000	373	12.43
합계/평균			116	13,920	2517	18.09

- \* 전체응답수: 각 Hue 계열별 색편수의 총수 × 학생수 (중고등 60명) × 응답유형2(선택형, 기술형)
- \* 일치응답수: 색편에 대한 응답이 KS A 0011과 일치하는 경우
- \* 평균일치율: 전체 응답 중 일치 응답수의 비율(백분율)

관용색의 5개 계열 중에서 일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남색, 보라, 자주’ 계열이고 가장 낮은 것은 ‘빨강’ 계열이다. 계열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빨강’ 계열의 일치율이 낮은 것은 공통적이나 관용색에서 ‘노랑’ 계열의 일치율이 낮은 것은 특이하다. 또 ‘남색, 보라, 자주’ 계열의 응답일치율이 23.33%인데 비해 ‘빨강’ 계열의 응답율이 12.43%로 약 10%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통색의 경우 가장 일치율이 높았던 ‘노랑’ 계열이 30%가 넘는 일치율을 보인 것(앞의 (3)을 참조)에 비하면 관용색의 응답일치율은 이보다는 조금 낮다고 하겠다.

(14) 계통색과 관용색의 응답일치율 비교 (응답 유형, 학년 통합 일치율)



(14)는 앞서 (3) 계통색의 일치율과 (13) 관용색의 일치율의 응답 결과를 나란히 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관용색 응답의 경우 일치율은 계통색에 비해 높지 않지만 색상의 계열에 따른 편차는 오히려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관용색 116개 색편의 응답과 일치율 등을 살펴보자. 우선 선택형 문항의 응답 중 상위 10개 색편의 목록을 보이면 (15)와 같다. 이때 해당하는 색이름의 기술형 문항의 응답에서의 순위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15) 관용색 일치율 순위 - 선택형 문항 (상위 10개)

순위	선택	기술	관용색 이름	H V/C	중학교			고등학교			일치 응답수	일치율 (%)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	24		박하색	2.5PB 9/2	7	9	8	7	10	8	49	81.66
	40		비둘기색	5PB 6/2	8	8	10	6	9	8	49	81.66
3	59		진주색	10YR 9/1	5	8	5	8	9	4	39	65
4	7		살구색	5YR 8/8	4	8	8	5	5	8	38	63.33
5	14		보라	5P 3/10	8	7	6	3	5	4	33	55
	60		벚꽃색	2.5R 9/2	6	7	5	3	6	6	33	55
7	19		연분홍	10RP 8/6	8	4	7	3	4	5	31	51.66
8	4		연두색	7.5GY 7/10	7	4	2	6	7	4	30	50
9	8		자주	7.5RP 3/10	6	5	4	4	7	3	29	48.33
	90		스카이그레이	10B 8/2	8	2	6	9	0	4	29	48.33

관용색의 경우 응답 일치율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색이름이 ‘자주, 연두색, 보라’ 등을 계통색이름을 제외하면 사물의 이름인 ‘박하색, 비둘기색, 벚꽃색, 진주색, 살구색’이거나 파생어형인 ‘연분홍’, 외국어인 ‘스카이그레이’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통색이름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다. 피험자들은 관용색이름의 선택형 문항에서는 오히려 사용 빈도나 일반적이지 않은 색이름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색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물의 이름을 쓴다는 관용색이름의 본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위 30위까지에 해당하는 색이름들을 보아도 대부분 과일이나 특정한 사물과 관련한 색이름인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라벤더색, 당근색, 레몬색, 국방색, 꽃분홍, 노른자색, 우유색, 하늘색, 잔디색, 쪽색, 귤색, 포도주색, 베이지그레이, 감색[과일], 진달래색, 멜론색, 해바라기색, 베이비핑크, 계란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이때 사물의 이름들은 친숙하지 않은 경우,



즉 특이하고 두드러지는 보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들 관용색이름이 선택형이 아닌 기술형에서는 그 순위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관용색 전체 색편의 수가 119개인 것을 감안하면 ‘스카이그레이(90위)’나 ‘진주색, 벚꽃색’ 등은 결코 색채의 인지와 언어 표현의 정확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또 관용색이름 중 ‘물색, 하늘색, 시안, 세룰리안블루, 파스텔블루, 파우더블루, 스카이그레이, 바다색, 박하색’ 등은 색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부분 ‘하늘색’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색상과 주어진 색이름을 연결하는 과제에서는 특이한 색이름의 선택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관용색이름에 대한 기술형 문항의 상위 10개 색편의 목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6) 관용색 일치율 순위 - 기술형 문항 (상위 10개)

순 위	관용색 이름	H V/C	중학교			고등학교			일치 응답수	일치율 (%)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	노랑 (개나리색)	5Y 8.5/14	8	8	5	9	5	10	45	75
2	보라	5P 3/10	9	7	6	7	5	10	44	73.33
3	주황	2.5YR 6/14	4	7	9	5	1	8	34	56.66
4	파랑	2.5PB 4/10	6	5	6	6	2	7	32	53.33
5	연두색	7.5GY 7/10	6	4	4	9	3	5	31	51.66
6	초록	2.5G 4/10	5	1	5	10	4	5	30	50
7	하늘색	7.5B 7/8	4	3	3	6	4	7	27	45
8	살구색	5YR 8/8	2	8	5	6	3	2	26	43.33
	자주	7.5RP 3/10	3	2	4	8	3	6	26	43.33
	갈색	5YR 4/8	4	0	5	5	4	8	26	43.33

위 (16)의 목록 중 ‘하늘색, 살구색’을 제외하면 모두 계통색이름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본색에 해당하는 색이름들이 인지와 언어 표현 모두 비교적 정확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선택형 응답의 색편 목록이 주로 사물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기술형 응답은 기본색이름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보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색이름을 고르는 실험에서는 특수한 색채와 색이름이 우선적으로 선택된 반면, 색편을 보고 직접 이름을 써야 하는 문제에서 피험자들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색편에 대해 인식과 언어 표현의 정확성을 높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사물과 관련한 관용색이름이 색을 구분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실제 언어사용자가 색을 표현하는 데에는 계통색이름에 비해 활용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박하색은 기술형 응답에서는 25위(일치응답수 4개)에 그쳐 선택형일 때 1위를 했던 것이 비하면 일치응답수가 매우 적는데, 선택형의 경우 보기가 주어진다든 점 때문에 선택이 비교적 용이했을 것이나 색편을 보고 직접 색이름을 생각해서 써야하는 기술형의 경우에는 ‘박하색’을 잘 떠올리지 못했거나 아예 ‘박하색’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 피험자들이 ‘박하색’을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관용색의 일치율 순위를 질문지 유형과 학년을 통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아래 (17)과 같다. 전체 일치율을 보았을 때 ‘보라’와 ‘살구색’이 각각 64.17%, 53.33%로 가장 높았고 ‘초록’과 ‘하늘색’은 42.50%의 평균 일치율을 보였다. 특히 하계 ‘살구색’의 일치율이 높은 것은 ‘살색’을 ‘살구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때문으로 보인다.

(17) 관용색의 일치율 순위 - 질문지 유형, 학년 통합 (상위 10개)

순위	관용색이름	H V/C	일치 응답수			일치율 (%)		
			선택형	기술형	합	선택형	기술형	평균
1	보라	5P 3/10	33	44	77	55.00	73.33	64.17
2	살구색	5YR 8/8	38	26	64	63.33	43.33	53.33
3	노랑 (개나리색)	5Y 8.5/14	18	45	63	30.00	75.00	52.50
4	연두색	7.5GY 7/10	30	31	61	50.00	51.67	50.83
5	주황	2.5YR 6/14	25	34	59	41.67	56.67	49.17
6	자주	7.5RP 3/10	29	26	55	48.33	43.33	45.83
7	박하색	2.5PB 9/2	49	4	53	81.67	6.67	44.17
8	파랑	2.5PB 4/10	20	32	52	33.33	53.33	43.33
9	초록	2.5G 4/10	21	30	51	35.00	50.00	42.50
	하늘색	7.5B 7/8	24	27	51	40.00	45.00	42.50

다음으로 하위 10개 색이름의 순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8) 관용색이름의 선택형 문항에서 피험자들은 ‘백옥색’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 ‘에메랄드 그린’이나 ‘옥색’ 역시 1-2회 선택하였고 ‘옥색’ 색편에는 ‘에메랄드그린’이나 ‘멜론

색', '물색'을 반대로 '에메랄드그린'에는 '옥색'이나 '물색' 등을 선택하였다. 즉 '옥색(7.5G 8/6), 백옥색(2.5G 9/2), 에메랄드그린(5G 5/8)'은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분명한 색이지만 피험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어진 보기에서 알맞은 색이름을 선택하는 과제에서도 거의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일부 관용색이름의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8) 관용색 일치율 순위 - 선택형 문항 (하위 10개)

순위	관용색이름	H V/C	중학교			고등학교			일치 응답수	일치율 (%)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15	홍차색	7.5R 3/8	3	0	2	0	0	1	6	10
	산호색	7.5R 7/8	3	0	2	0	0	1	6	10
	황녹색	10G 6/10	2	1	2	0	0	1	6	10
	시안	7.5B 6/10	2	1	1	0	0	2	6	10
	사과색(진홍)	7.5R 3/12	3	0	2	0	0	1	6	10
	호박색[채소]	10YR 7/14	3	2	1	0	0	0	6	10
116	감색	2.5YR 5/14	4	0	0	0	1	0	5	8.33
117	옥색	7.5G 8/6	0	1	0	0	0	1	2	3.33
118	에메랄드그린	5G 5/8	0	0	1	0	0	0	1	1.66
119	백옥색	2.5G 9/2	0	0	0	0	0	0	0	0

(19) 관용색이름 중 기술형 응답의 실제

가. 0회: 스카이그레이, 감색[과일], 계란색, 적황, 모카색, 파스텔블루, 인디고블루, 세틀리안블루, 초콜릿색, 청동색, 구리색, 캐러멜색, 파우더블루, 가죽색, 금발색, 코발트블루, 점토색, 커피색, 호두색, 모래색, 바나나색, 사과색(진홍), 호박색[채소], 옥색, 에메랄드그린, 백옥색, 프리시안블루, 세피아, 카테이션핑크, 베이지그레이, 마젠타...

나. 1회: 진주색, 벚꽃색, 베이비핑크, 호박색[광물], 흑갈, 벽돌색, 물색, 황갈, 병아리색, 올리브색, 청포도색, 올리브그린, 연지색, 새면핑크, 참다래색(키위색), 루비색(크림슨), 복숭아색, 선홍, 석류색, 수박색, 대추색(적갈), 장미색(자두색), 홍차색, 산호색, 황녹색 ...

(19)는 관용색이름의 기술형응답 과제에서 피험자들의 응답과 KS A 0011의 관

용색이름이 일치한 회수가 0회와 1회인 관용색이름의 목록이다. 대부분 사물을 이용한 색이름으로 외국어 색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험자들은 위와 같은 색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마젠타(5RP 5/14)’의 경우 ‘핫핑크, 진한 분홍색, 핑크색, 딥핑크(진분홍), 진분홍색’ 등과 같이 동일 계통의 계열색이름에 ‘진한, 핫, 딥’과 같은 표현을 더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관용색이름의 기술형응답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계열색에 수식형용사를 더하거나 ‘핑크,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민트’ 등 외국어 색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래는 관용색이름의 응답을 질문지 유형과 학년을 통합하여 보인 것이다.

(20) 관용색의 일치율 순위 하위 10개 - 질문지 유형, 학년 통합

순위	관용색 이름	H V/C	정답수			백분율		
			선택형	기술형	합	선택형	기술형	평균
115	산호색	7.5R 7/8	6	1	7	10.00	1.67	5.83
	바나나색	<b>5Y 8/12</b>	7	0	7	11.67	0.00	5.83
	황녹색	10G 6/10	6	1	7	10.00	1.67	5.83
	시안	7.5B 6/10	6	1	7	10.00	1.67	5.83
	감색	2.5YR 5/14	5	2	7	8.33	3.33	5.83
116	사과색(진홍)	7.5R 3/12	6	0	6	10.00	0.00	5.00
	호박색[채소]	10YR 7/14	6	0	6	10.00	0.00	5.00
117	옥색	7.5G 8/6	2	0	2	3.33	0.00	1.67
118	에메랄드그린	5G 5/8	1	0	1	1.67	0.00	0.83
119	백옥색	2.5G 9/2	0	0	0	0.00	0.00	0.00

(20)에 보이는 것처럼 하위 10개의 색이름들은 사물이나 외국어를 이용한 것으로 기술형 응답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관용색이름이 본래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색이름을 표준색이름의 체계에 반영한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IV. ‘물체색의 색 이름’에 대한 문제점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수치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실험의 자료로 사용된 KS A 0011의 ‘물체색의 색이름’과 실험 결과로 나타난 언어적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규정으로서의 색이름과 현실적 사용으로서의 색이름 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S A 0011의 표준색과 그에 대한 색이름은 실제 언중들의 사용을 고려한 것이기보다는 색의 스펙트럼에서 H V/C 체계에 따라 한 지점을 정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과 형식을 이용하여 색이름을 정한 것이다. 이때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계열색이름을 기반으로 하되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여 이번 실험을 통해 나타난 중·고등학생들의 색채에 대한 인지와 언어적 표현 양상을 통해 KS A 0011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1. 수식 형용사 표현 문제**

KS A 0011의 ‘수식 형용사’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현희·신호철(2012)에서 제기된 바 있다.<sup>8)</sup> 이어 본고는 중·고등학생들의 실제 응답형과 KS A 0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식 형용사들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수식 형용사 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중·고등학생들의 응답에 나타난 수식형용사와 해당하는 색편의 KS A 0011의 색이름을 함께 보이면 (21)과 같다.

(21) 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수식 형용사

KS A 0011		피험자의 응답	
색이름	수식형용사	색이름	
선명한 주황	선명한	진한	진한 주황

8) KS A 0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식 형용사’로 유채색에 ‘선명한, 흐린, 탁한, 밝은, 어두운, 진(한), 연(한)’이 있고, 무채색에 ‘밝은, 어두운’ 등 전체 9개가 있는데, 이들이 기본색 이름이나 조합색 이름과 어울려 색채명을 만들어 사용할 때 수식 형용사는 그 의미나 범위가 매우 모호하여 선명하고 흐리고 탁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와도 맞지 않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채명을 조합할 때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중학생들의 색채 인지와 표현의 사용 실태를 보면 이 수식 형용사들이 조합된 색채명에 대한 전체 평균 일치율이 23.6%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의하면서 수식 형용사의 개념과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선명한 노란 연두		밝은	밝은 노랑
탁한 노란 분홍	탁한	어두운	흐린 노랑
탁한 갈색		흐린	어두운 갈색
진한 갈색	진한	선명한	선명한 갈색
진한 노랑		짙은	짙은 노랑
진한 청록		어두운	어두운 녹색
흐린 노랑	흐린	어두운	어두운 노랑
흐린 갈색		연한	연한 갈색
흐린 황갈색		탁한	탁한 갈색
어두운 초록	어두운	검은	검은 녹색
어두운 갈색		진한	진한 갈색
어두운 녹갈색		짙은	짙은 갈색
밝은 주황	밝은	연한	연한 주황

나. 실제 응답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KS A 0011의 대응 수식 형용사

실제 응답형	KS A 0011	실제 응답형	KS A 0011
진한	선명한, 어두운	선명한	진한
밝은	선명한	짙은	진한, 어두운
어두운	탁한, 진한, 흐린	연한	흐린, 밝은
흐린	탁한	탁한	흐린
검은	어두운		

(21가)에서 KS A 0011의 체계에 나타난 6개의 수식형용사는 피험자의 응답에 따르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수식형용사와 대응된다. 이현희·신호철(2012)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일반 언중에게 ‘진한, 흐린’ 등이 채도와 관련된 표현인 것에 비해 KS A 0011의 ‘진한, 흐린’은 채도와 명도가 함께 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순서를 바꿔서 보인 (21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혼용은 KS A 0011의 수식형용사가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우에 따라 혼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1가)에서 ‘탁한’은 ‘어두운’이나 ‘흐린’으로 사용하는데, ‘탁하다’의 사전 뜻풀이에 ‘어두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탁한’을 ‘어두운’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진한’ 역시 사전 뜻풀이에 ‘색깔의 뚜렷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명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어두운’의 사전 뜻풀이에도 ‘빛이나 그 밝기가 강하지 못하다’거나 ‘빛깔에 검은색이

많이 섞여 있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때, '어두운'이 '검은, 진한, 짙은' 등으로 사용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22)의 예이다.

(22) KS A 0011 의 기타 수식 표현

상태	열은, 옅은, 환한, 칙칙한; 뭉은, 흐릿한
성질	부드러운
정도	완전, 조금, 약간, 더, 좀더
기타(외국어 포함)	형광, 리얼, 핫, 비비드한, 딥

이번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기술형 응답에 나타난 수식 형용사는 위와 같이 다양하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색채 자체의 명도나 채도가 아닌 색편을 본 후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 색의 진하고 흐린 정도, 밝기의 정도, 또는 색이 보여주는 분위기 등에 따라 구분되는 형용사는 물론이고, 색의 질감과 관련된 형용사나 정도를 표현하는 부사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외국어도 다수 사용되었는데, '리얼, 비비드한, 핫, 딥'과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리얼'은 '완전한, 순전한'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순수한 '빨강'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 '완전 빨강, 리얼 빨강'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완전'과 '리얼'은 색채 표현에서 동일한 강조의 표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핫(Hot)'이 색채 표현의 수식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진한 분홍'을 나타낼 때 '핫핑크'로 사용된다.

위와 같이 피험자들은 색이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 색채 자체에 대한 표현에 더해 색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술형 응답의 경우 '명명한 색, 연보라보다 밝은 색, 기분이 좋은 색, 더러운 색' 등 매우 다양한 응답을 보여준다. 물론 실제 응답에 나타난 색채 표현의 다양성을 규범인 KS A 0011에 모두 반영하기란 어려운 일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S A 0011에서 제정하고 있는 수식 형용사의 범주와 개념을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에 맞추고, 현재 유채색 7개, 무채색 2개로 제한을 둔 수식 형용사의 수를 더욱 확대한다면 국가 표준 색채명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색채명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색상의 계열과 색이름 간의 불일치 문제**

KS A 0011에서는 '빨강' 계열의 색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피험자들에게는 오히

려 ‘갈색’ 계열의 색으로 인지되는 등 KS A 0011의 색이름 계열이 실제 응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는 색이 일종의 스펙트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색의 계통색이름이 적절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즉 규범으로서의 색이름과 실제 사용으로서의 색이름 간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둘 중 한 쪽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 (23)는 계통색이름 중 ‘빨강’ 계열의 색이름을 가졌으나 실제 응답에서 ‘갈색’으로 표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예이다. 계통색의 응답 일치율 중 최하위권인 ‘탁한 빨강(191위)’과 ‘흐린 빨강(190위)’은 계통색이름을 ‘빨강’이 아닌 ‘갈색’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어두운 빨강(183위)’은 ‘자주색’이나 ‘고동색’ 등 ‘갈색’에 가까운 색으로, ‘검은 빨강(188위)’ 역시 ‘갈색, 고동색’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즉 ‘탁한 빨강, 흐린 빨강, 어두운 빨강, 검은 빨강’ 등은 물리적으로는 ‘빨강(R)’ 계열의 색일지 모르나 실제 피험자들에게는 ‘갈색(5YR 4/8)’에 가까운 색으로 인지되고 또 그것이 색이름을 표현하는 과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23) ‘빨강’ 계열의 간색과 실제 응답 유형

색이름	진한 빨강 7.5R 3/12	어두운 빨강 5R 2/6	탁한 빨강 7.5R 4/6	흐린 빨강 7.5R 5/6	검은 빨강 7.5R 2/2	빨강 검정 5R 2/1
고1	진한 빨강색	진한 보라색	갈색	엷은 갈색	많이 진한 갈색	약간 어두운 갈색
	갈색	갈색	갈색	갈색	갈색	갈색
	밝은 갈색	나무색	적갈색	탁한 적갈색	갈색	진한 갈색
	흑빨간색	빨간빛 갈색	갈색	연한 갈색	고동색	어두운 고동색
	벽돌색	균은 피색	나무색(고동색)	엷은 갈색	똥색	더 진한 똥색
	벽돌색	균은 피색	갈색	밝은 갈색	진한 고동색	더~진한 고동색
	붉은 자주색	붉은 밤색	갈색	연갈색	똥색	고동색
	갈색보다 밝은색	보라색 제일 어두운 색	주황 어두운 색	주황 약간 밝은 색	갈색	다크초코
	칙칙한 빨강	균은 피색	갈색	밝은 갈색	짙은 고동색	엄청 진한 고동색
	정말 칙칙한 빨강	기분 나쁜 빨간색	갈색이 섞인 빨간색	엷은 빨간 갈색	진한 고동색	더 진한 고동



고2	탁한 빨강	칙칙한 자주색	연한 자주색	조금 탄 살색	칙칙한 녹색 구리색	검은색에 붉은 물감 한 방울
	썩은 나무색	고동색	흙색	툭밥색	사슴벌레색	빨간 물감
고2	어두운 빨강	자주색	탁한 어두운 빨강 주황	탁한 분홍빛	진갈색	고동색
	보통 빨강	굉장히 진하고 탁한 빨강색	적색	탁한 살색	갈색	무난한 갈색
	검은 빨강	보라색	갈색	연한 갈색	짙은 갈색	오크색
	피색(동맥혈)	피색(정맥혈)	갈색	연한 갈색	고동색	짙은 고동색
	썩은 피 같은 색	자주색	열은 갈색	때 묻은 살색	썩은 나무색	짙은 고동색
	칙칙한 빨강	살짝 쓴 초콜렛색	알맞게 단 초콜렛색	갈색	고동색	많이 오염된 갈색
	탁한 붉은색	갈색	고동나무색	맑은 나무색	어두운 갈색	산화된 쇠색
	열은 갈색	갈색	갈색	열은 갈색	갈색	검은 갈색

이러한 양상은 계통색의 모든 간색에서 나타나고 있다.<sup>9)</sup> 예를 들어 ‘빨강(R)’ 계열의 색이름에는 ‘노란 분홍, 밝은 빨강 주황, 어두운 적회색’ 등이 있고, ‘노랑(Y)’ 계열에는 ‘노란 하양, 노란 연두, 어두운 녹색’ 등의 간색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빨강’이나 ‘노랑’ 계열의 색으로 인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홍, 주황, 회색’, ‘하양, 연두, 녹색’ 등으로도 인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란 분홍’은 대부분 ‘살색’이나 ‘살구색’으로 쓰고 있고, ‘밝은 빨강 주황’은 ‘다홍색’으로 ‘어두운 적회색’은 ‘회색, 갈색’으로 쓰고 있다.

즉 동일한 계열의 색이라고 해도 피험자들이 보기에는 다른 계열의 색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색채의 스펙트럼에서 표준색을 정하고 이에 대한 색이름을 붙이는 과정에 물리적인 위치와 체계적인 명명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언중

9) 현재 KS 삼속성 표시는 ‘H V/C’로 표시되는데 ‘색상 명도/채도’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색채의 이름은 색상(Hue)의 범위, L\*a\*b\* 표색계 및 L\*u\*v\* 표색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등 표색계에 나타나 있는 색의 위치와 명도(L\*), Red에서 Green까지의 색 영역(a\*)이나 Yellow에서 Blue까지의 색 영역(b\*)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색채명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다양한 객관적인 기준뿐 아니라, 그 색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지도나 표현 양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결정한다면 일상적 색채명과 국가 표준 색채명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들의 인지와 사용 양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험자들은 초점 색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되면 아예 다른 계열색에 속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즉 ‘빨강’의 초점색에서 멀어진 ‘진한 빨강, 어두운 빨강, 흐린 빨강, 검은 빨강’ 등의 색이름은 오히려 ‘갈색’의 색이름을 계통색으로 가지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제 언어 현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3. 조합색의 색채명 문제

KS A 0011에서는 유채색의 ‘기본색이름’(KS A 0011의 띄어쓰기를 따름) 12개와 무채색의 기본색이름 3개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15개의 기본색이름이 있는데, 이들을 가지고 무한수에 이르는 색채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본색이름을 가지고 조합하여 새로운 색채명을 합성한다. 그 조합 방법에 대해서는 KS A 0011의 3쪽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24) 기본색이름의 조합 방법

- 가. 2개의 기본색이름을 조합하여 조합색이름을 구성한다.
- 나. 조합색이름의 앞에 붙는 색이름을 수식형, 뒤에 붙는 색이름을 기준 색이름이라 부른다.
- 다. 조합색이름은 기준 색이름 앞에 색이름 수식형을 붙여 만든다.
- 라. 색이름 수식형에는 33가지 유형이 있다.
  - ㉠ 기본색이름의 형용사  
(보기: 빨간, 노란, 파란, 흰, 검은)
  - ㉡ 기본색이름의 한자 단음절  
(보기: 적, 황, 녹, 청, 남, 자, 갈, 백, 회, 흑)
  - ㉢ 수식형이 없는 2음절 색이름에 ‘빛’을 붙인 수식형  
(보기: 초록빛, 보랏빛, 분홍빛, 자줏빛)

조합색을 이루는 색채들에 대한 명칭을 조합하는 방법이 (24)에서와 같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은 기본색이름 두 개로 조합색이름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때 뒤에 오는 색이름이 기준 색이름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색이름이 ‘흰 초록(2.5G 9/2)’이라면 ‘초록(2.5G)’ 계열의 색이다. 문제는 ‘흰 파랑(2.5PB 9/2)’과 ‘파란 하양(10B 9/1)’, ‘검은 빨강(7.5R 2/2)’과 ‘빨간 검정(5R 2/1)’ 간의 구분이다. 이는 곧 한자어인 ‘적흑색(붉은빛을 많이 띤 검은색)’과 ‘흑적

색(검은빛을 띤 짙은 붉은색)’의 구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흰 파랑’과 ‘파란 하양’을 비교해 보면 ‘흰 파랑’이 좀더 파란색이 진하고, ‘검은 빨강’과 ‘빨간 검정’의 경우는 ‘빨간 검정’이 조금 더 검정에 가깝다. 색편을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이 구분이 되지만 색편을 단독으로 놓고 색이름을 선택하거나 써야 할 상황이라면 피험자들에게 ‘흰 파랑’과 ‘파란 하양’의 구분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계통색이름 중 조합색이름이 사용된 색편들의 응답일치율을 하위 권에서부터 선별해서 보이면 (25)와 같다. 이 중 ‘탁한 자줏빛 분홍’의 경우 4.17%로 192개의 색채명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 조합색이름은 (24-라-㉔)의 방식으로 조합한 색채명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중에서 4% 정도만이 이것을 인지하고 선택형 문항의 응답으로 제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기술형 문항의 응답은 ‘0’회였다. 이는 다른 조합색이름에도 마찬가지로 (25)에 제시한 18개의 조합색이름 중에서 기술형 응답 중 KS A 0011과 일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0’회이다.

(25) 조합색이름의 일치율

순 위	조합색이름	중학교						고등학교						총합	백분율 (%)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선	기	선	기	선	기	선	기	선	기	선	기		
123	녹갈색	3	0	6	0	0	0	5	0	3	0	4	0	21	17.50
125	파란 검정	5	3	6	2	0	0	2	0	0	0	3	0	21	17.50
130	갈회색	6	0	5	0	1	0	2	0	2	0	4	0	20	16.67
139	분홍빛 회색	5	3	0	0	4	0	2	0	3	0	2	0	19	15.83
150	검은 자주	5	2	2	0	3	0	1	0	2	0	3	0	18	15.00
151	회분홍	7	3	0	0	3	0	1	0	1	0	3	0	18	15.00
160	갈흑색	5	0	3	0	1	0	3	0	2	0	2	0	16	13.33
163	회연두	4	0	2	0	3	0	2	0	1	0	3	1	16	13.33
165	진한 자줏빛 분홍	5	2	3	0	1	0	1	0	0	0	4	0	16	13.33
167	노란 갈색(황갈색)	5	1	4	0	0	0	2	0	1	0	2	0	15	12.50
175	녹연두	3	0	3	0	1	0	1	0	1	0	4	0	13	10.83
178	자줏빛 분홍	5	1	3	0	0	0	0	0	0	0	4	0	13	10.83
182	연한 자줏빛 분홍	4	1	2	0	0	0	1	0	0	0	4	0	12	10.00
184	빨간 회색(적회색)	3	1	3	0	2	0	0	0	0	0	1	1	11	9.17
186	빨간 검정	3	1	2	0	2	0	0	0	0	0	1	1	10	8.33
188	검은 빨강	2	1	2	0	2	0	0	0	0	0	1	0	8	6.67
189	탁한 자줏빛 분홍	5	1	0	0	0	0	0	0	0	0	2	0	8	6.67

	(5RP 7/6)														
192	탁한 자줏빛 분홍 (5RP 6/6)	0	0	2	0	0	0	2	0	0	0	1	0	5	4.17

이처럼 색채명이든 아니든 어떤 명칭의 표준을 정하기에 앞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언중들이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색 15가지를 산술적으로 조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어의 색채를 명명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언중들은 언중의 편에서 언중의 편의에 따라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언중들의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개의 기본색이름 중 선행하는 ‘색이름 수식형’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할 때의 규칙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색이름 수식형에는 ‘검은, 흰(24-라-㉞)’과 ‘흑, 백(24-라-㉟)’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검정(N5)’이나 ‘하양(N9.5)’ 계열의 조합색이름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두 수식형의 의미나 기능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또한 ‘검은’과 ‘검’ 중에 어떤 것을 조합해야 할지도 그 기준이 없다. 곧 ‘검청록’과 ‘검은 청록’ 중 어떤 것이 맞는 색채명인지 모른다. 색채명에는 ‘검은 청록’은 있지만 ‘검청록’은 없다. 그러나 ‘검청록’은 학생들이 직접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사용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조합하여 만든 색채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26) 학생들이 직접 조합한 조합색이름의 예  
검녹색, 검청색, 회파랑, 감파랑, 검남색 등

### V. 결론

이제까지 수도권 중·고등학교 6개 학년 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KS A 0011에서 정한 표준색의 색 이름에 대한 인지도와 표현 양상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S A 0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색채명의 분류 체계나 조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친다.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KS A 0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통색의 색채명을 22.72% 정도만이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노랑’ 계열로 31% 정도의 응답일치율을 보인다. ‘연두, 초록’, ‘빨강’, ‘분홍, 자주’ 계열이 하위권에 속했는데, 20% 이하의 일치율을 보였다. 특이한 것은 기본색인 ‘빨강’의 응답 일치율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이다. ‘빨강’ 계열의 색편들이 계통색이름과 관용색이름은 물론이고, 선택형 문항과 기술형 문항 전체적으로 고루 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빨강’ 계열의 표준색과 표준색이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관용색 중에서 일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남색, 보라, 자주(PB, P, PR)’ 계열의 색으로 평균 일치율은 23.33%를 보이고 있고, 일치율이 가장 낮은 것은 ‘빨강’ 계열의 색으로 12.43%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용색에 대한 평균 일치율은 18.09%로 계통색의 일치율보다 더 낮음을 볼 수 있었다.

계통색이름이 전체 순위와 개별 순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 것에 비해, 관용색이름은 질문의 유형이 선택형 문항인지 기술형 문항인지에 따라 다른 순위를 보였고, 또 이들을 통합하여 순위를 매겼을 때도 목록의 순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선택형문항의 경우 ‘박하색, 비둘기색, 진주색’ 등 사물의 이름을 이용한 색이름들이 상위 10위권에 속해 있었던 것에 비해 기술형문항에서는 ‘노랑, 보라, 주황, 파랑’ 등 계통색이름이 상위권에 속했다. 하위권에는 선택형과 기술형 문항 모두 사물과 관련한 관용색이름이 속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외국어를 이용한 표현들이 하위 응답에 대거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실제 기술형 문항의 응답 유형으로 빈도 ‘0’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KS A 0011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첫째, 수식 형용사의 확대 문제와 그 범주와 개념의 폭을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로 수정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둘째, 중·고등학생들은 국가 표준으로 정한 간색의 색채명을 거의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계통색과 계통색 사이에 있는 간색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언중들의 색채 인지와 사용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나서 이러한 분류 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합색이름을 만들 때 기본색이름끼리의 조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곧 국가 표준에서 정한 규칙대로 조합색이름을 인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놓고 볼 때, 국가 표준을 정하기 전에 언중들이 실제 인지하는 색채와 그 이름, 또 실제로 사용하는 색채 표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지면의 한계 상 미처 논의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

이 있다. 예를 들어 기술형 응답에 나타나는 다양한 조어 양상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색채 인지와 언어 표현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능한 국어과와 미술과의 통합 교육 방안, 현재 산업계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색이름들을 규범으로서 KS A 0011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외 다양한 문제들을 곧 다른 논문을 통해 다루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구본관 (2008). “한국어 색채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2), 261-28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권오상·이만영 (2001). 초점색간 심리적 거리를 통한 기본색이름 발생 순서 연구. 한국색채학회 2001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영선·박현수·이윤희 (2001). “한국어 색이름의 면셀 색채 공간 연구(I).” *한국색채학회지* 15(1), 29-36. 한국색채학회.
- 김영선·김선희·권오상·여명선 (2001). “한국어 색채 서술 형용사의 심리적 구조 분석.” *한국색채학회지* 15(1), 21-28. 한국색채학회.
- 류무수·이몽희·김중호 (1998). “우리말 색채감각형용사의 정량화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조형학회지* 7, 86-145. 한국색채조형학회.
- 문은배 (2008).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색채 표준. 국제 색채산업 동향 세미나 강연 자료집.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박연선 (2009). 공공기관에서 색채 표준의 이해. 2009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 사용설명회 강연 자료집.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박현수·김영선 (2001). “한국어 색이름의 면셀 색채 공간 연구(II).” *한국색채학회 동계 학술 대회 논문집*, 29-39.
- 박현수·김영선·이만영 (2007). “한국어 기본 색이름과 조합색이름의 색채 공간 분포.” *한국색채학회지* 21(4), 21-34. 한국색채학회.
- 박현수·김인지·김영선·이만영 (2004). “색이름과 형용사 수식어에 의한 한국어 색채 표현 형식의 탐색.” *한국색채학회지* 18(3), 11-21. 한국색채학회.
- 신호철 (2012). 한국어 색채 표현의 이원 체계.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6차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만영·김영선 (1997). “한국인의 기본 색이름에 대응하는 색상에 관한 연구.” 인지과학 8(4). 1-10. 한국인지과학회.
- 이정애 (2008). “국어 색채어의 의미와 시작의 보편성.” 한국어의미학 27. 151-178. 한국어의미학회.
- 이현희 (2011). “한국어 색채 표현의 양상과 그 분류.” 한글 291. 193-228. 한글학회.
- 이현희·신호철 (2012). 색 인지와 색채 표현의 상관성-중학생을 대상으로. 제35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
- (주)문은배색채디자인·홍익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센터.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B. Berlin and P. Kay (1969/1991).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CSLI Publication.
- J. Davidoff(1997). *The neuropsychology of color. Color categories in thought and language.* Edt. C. L. Hardin and L. Maffi. Cambridge.
- L.Sivik(1997). *Color systems for cognitive research. Color categories in thought and language.* (Eds). C.L.Hardin and L. Maffi. Cambridge.
- T.A. Harley(2008). *The psychology of language-from data to theory.* Psychology press.
-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2010년 12월 14일 개정. 고시 번호 2010-0585)
-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2003년 12월 26일 개정. 고시 번호 2003-1669. 2008년 11월 11일 확인. 고시 번호 2008-0759)
-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2010년 12월 14일 개정. 고시 번호 2010-0585)

이현희

hhlee311@korea.ac.kr

신호철

kkokku@kyonggi.ac.kr

논문 접수일: 2012.03.30.

논문 심사일: 2012.04.15.~2012.05.10.

게재 확정일: 2012.05.15.